



김경남(민주·서구 3)의원

■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광주시의회는 24일 제207회 임시회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받았다. 이날 시정 질문에 나선 임동호(교육·남구) 의원은 광주시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사업 추진 문제점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체 유치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경남(민주·서구 3) 의원은 광주시의 지방재정 확보 및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따른 개선대책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관련된 후속 조치 및 정책적 홍보 등을 따졌다.



임동호(교육·남구)의원

계획만 요란한 교통약자 편의사업

저상버스 목표의 7.7%... 광역시 최하위

임동호 의원은 이날 열린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교통 약자 이동 편의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별 시행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국토

해양부의 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저상버스 308대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광주시가 도입한 저상버스는 72대로, 도입률이 7.74%밖에 되지 않아 보급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률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임 의원은 “다른 시·도는 매년 저상버스 도입을 늘려가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매년 10대씩 만 도입하고 있어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따졌다.

임 의원은 또 “법과 조례에 따르면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나 2011년도에는 연차별 시행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많아졌다”고 질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은 2016년도까지 목표 도입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2차 계획부터는 매년 시행계획을 실행성 있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인증 사회적기업 고작 27개

고용자 640명 전국 4.2% 불과

김경남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적 홍보 및 지속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1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27개 업체만 선정돼 지원되고 있다. 고용자 수는 640명으로, 광주시 경제활동인구 67만 3000명의 0.09%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전국 시·도별 비율에서도

4.2%에 불과해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홍보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무원교육원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자연경관, 먹을거리 등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 사업에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간접지원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제도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업종 범위확대 등을 촉구했다.

평동산단 혈값 분양 1200억 손실

수요예측 잘못... 市 재정악화 요인

광주시의회 허문수(민주·광산 2)의원은 24일 “광주시가 평동산단 단지를 조성원가에 못 미치는 ‘혈값’으로 분양해 1000억 원대의 손실을 냈다”고 주장했다. 25일 시정질문에 나선 허 의원은 하루 앞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평동 1·2차 단지를

터없이 낮은 혈값으로 분양, 조성원가 대비 사업 손실금이 125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유독 광주시만 혈값에 산단 부지를 할인 분양해 시 재정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됐다”며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조성원가에 못 미치

는 과도한 할인분양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평동1차 산단의 경우 m²당 조성원가는 11만6000원이었지만, 분양가는 8만5000원이었다. 2차 산단은 m²당 조성원가가 15만3000원~29만9000원이었지만, 분양가는 14만8000원~19만6000

원으로, 조성원가의 60~70%에 분양을 마쳤다. 시는 “평동 1차 산업단지과 2차 산업단지 1공구 역시 총사업비와 분양수입을 비교할 때 별도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2차 단지 2·3공구는 지원시설용지가 4%만 분양돼 투자비 회수지역에 따른 금융이자 증가문제가 발생해 조성원가보다 낮게 분양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재정손실을 감수하고 9만9000여평을 산업용지로 전환한 뒤 평당 65만원에 분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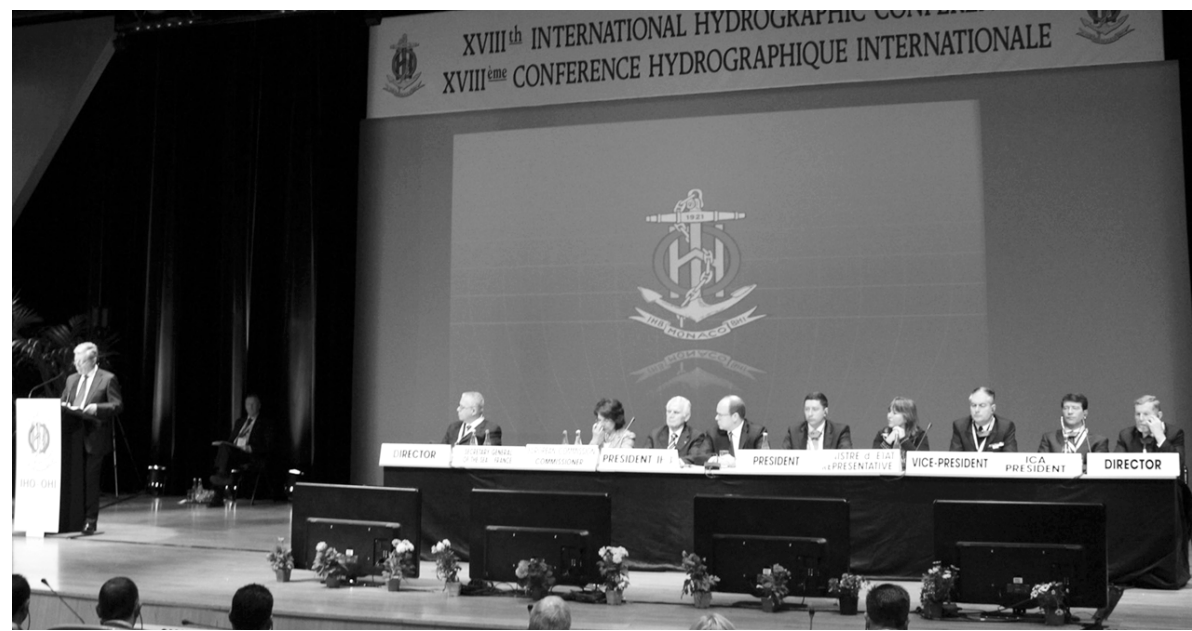
내년 예산 일자리·복지 투자 확대

‘균형재정 목표’ 재원 집중 국무회의 의결

내년도 나라 살림을 꾸리기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을 고려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일하는 복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에는 재원을 집중하여 배분한다는 게 밑그림의 열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고 이날 말까지 각 부처에 알리기로 했다. 2013년도 예산은 균형 재정을 회복함으로써 미래 대응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위기 이후 확대재정을 펴던 김대중 정부는 노후현 정부로 넘어가는 첫해인 2003년 균형재

정을 달성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편성하는 다음 정부의 첫 예산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을 보면 경제위기, 고령화·통일 대비 등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으로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 정책 대응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하는 복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한 점도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이다.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능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근로유인형(트랩플리형)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보육료·양육수당 확대, 3~4세 누리과정 도입,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김 차관은 보육정책이 지방재정에 부담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목표로 창조적 R&D 투자, 신산업·신시장 개척 지원 등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 분야도 지원한다. SOC·에너지 등 경제인프라도 구축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자 전후형 군대 육성, 112신고 시스템 개선, 학교·여성·아동폭력 근절 등에 투자를 늘린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6월20일까지 작성하면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IHO총회 개막

‘동해 표기’의 국제 표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제18회 국제수리기구(IHO) 총회가 23일(현지시간) 모나코 레니에르3세 오디토리움에서 개막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80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해 해양 조사와 수로 측량, 전지해도 등에 대한 국제 표준 제정 및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

“수서발 KTX 경쟁체제 국회에 맡겨야”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4일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서울~목포·부산)의 경쟁체제 도입 문제에 대해 “정부측은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 맡겨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추진 방식에 대해 “일부에서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과 오해의 시각이 있다”며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어 “정부의 추진 방식은 국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만큼 먼저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서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는 민간사업자에게 15년간 선로임대방식으로 수서발 KTX노선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특약형 특허등록 : 3개최우수기업으로선정된법원경매정보대한민국대표사이트!

『법원경매』의 길잡이 **다와옥션** 이 함께하는!

검색 | **다와옥션** | 검색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세요!
www.daw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 환불!

실전기본반 : 매주 수요일

- 오전 : 10시 30분 / 저녁 : 7시 (3개월, 14주, 25만원)
- 강사 : 이 정석 교수(저자직강)

실전문자반 : 매주 토요일

- 오전 : 10시(임장시 오후까지) (3개월, 14주, 50만원)
- 강사 : 안 성욱 교수(저자직강)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주)오천경매 투자연구소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

경매투자

- 실전경매 배우면서 수익 내실 분
- 주 1회 3개월 완성 / 회비 330만원
- 특수물건만 투자 / 수로 중 투자가능
- 자본주요시 / 공동투자가가능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입찰대리

- 확실하게 입찰 대리 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오천경매 H.010-4667-9300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 월 650만
-용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광주시내 2층 주거지역 토지구합

-면적 500-1000평
상무지구 랜드마크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 (문의)011-602-2532
광주은행 신림점, 대인동 소영사(건대)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텔,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합니다.

각 지역의골프장 및 음식점을 급매매로 찾습니다.

매수매도대기중

30년 부동산중개비법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높은 수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최기철공인중개사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전라남북도 일원의 투자처가 놓고 보장된 물건을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경매, 공매로 노출되지 않고도 가격은 더 안정된 확실한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매매 또는 교환으로 고객님의 취향껏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매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물건 또한 간단하고 쉽게 해결해내는 본 업체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를 가진 본 업체는 고객님의 고통을 이용해서 수수료나 몇 푼 챙기기애 급급한 무책임한 중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객은 평생고객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지역의 사무나, 모텔, 오피스텔, 빌딩, 상가, 대지 등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조용히 상담해 주십시오. 소중한 재산 믿고 맡겨만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가 및 사무나 (매매)

지역* 북구 삼각동 (사무나 현 상업중)
면적* 대지 약900평, 건물 : 2500평
지역* 서구 차평동 (상무지구) 상/빌딩
면적* 대지 (1000평, 건물 4000평)
지역* 삼우지구 사무나 현 상업중

최상의 전원주택 부지 적합

지역* 담양 1만평~2만평이상
5만평~10만평

지역* 장성 1만평~5만평
(각 타지역의 토지 또한 보유하고 있음)

956-6660-010-2139-6255